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개념과 접근과제 *

고 순 철

협성대학교 교수

Issues in the Concepts and Approaches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Soon Chul Ko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Summary

Although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does not give the cure-all solutions for the major problems faced in the communities, it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recognized as a newly emerging paradigm toward community development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However, more specific tasks and issues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remain unchallenged and descriptive statement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xtensive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s through the review of current works in the area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indicator, local agenda 21 and the relative issues. The recommendation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ing;

- 1) The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indicators available in the community level should be selected. Also, how to integrate the objective condi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in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s, and how to weigh the indicator item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compare and measure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works.
- 2) In relation to local agenda 21, how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is more important than the developing the local agenda 21.
- 3) The policies aimed to raise the resident's awareness, formation of community field, create community social capitals, and define strategies to the selectiv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e philosophy of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ctive in the field level.

Key Words :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Development indicators, Agenda 21

I. 서 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최근 사회발전과 관련된 많은 학문분야에서 보편적이지만, 중요하게 논의되고 개념의 하나이다. 이 개념이

학문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서구 중심적인 개발모형의 실패와 함께 잘못된 개발모형에서 비롯되는 환경 영향에 대한 비용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정상회담 이후 세계의 발전을

* 이 연구는 2000학년도 협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위한 새로운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동원된 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학문 분야별로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Brundtland, 1989; Estes, 1993).

인간과 지구 차원에서 지속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이상적인 것이지만, 그 개념적 논의는 단순한 것은 아니며, 또한 학문 분야별로도 그 논의의 전개속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개발(development)이란 두 가지 용어가 이미 가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일치된 합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목표는 분명하게 일치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접근과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탐구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분야인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수준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지역사회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대적, 상황적 발전이념과 접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질적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면, 이는 지역사회개발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의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제와 접근을 탐구하는 것은 의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시대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지역사회개발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의 실천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2)관련 주제에 대한 인접 학문간의 통합적 담론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개

념과 의미를 정립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지속가능성의 의미, (2)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의미와 접근, (3)지속 가능한 개발의 한 접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

1.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관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은 들어 올린다(uphold)라는 라틴어의 sus-tenere에서 유래하는데(Redclift, 1994: 17), Webster 사전에서는 자원과 그 이용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지 않거나 영원히 해를 입지 않도록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구환경 회담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의 발전 또는 개발의 목표와 방법을 함축하여 사용되고 있는 이 개념은 원래 1950년대에 환경의 수용능력 또는 인간의 영향력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생태계 내 모든 생물체의 형태와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제기한 Aldo Leopold에 의해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생태학적으로 발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생태적 발전(eco-development)'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1970년대까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및 사회개발과 환경 문제와의 관계에서 접근되었다. 즉, 자연자원의 기반을 감소시키는 경제성장에 의해 제기되는 환경적 위협의 차원, 즉 체계의 한계수용력(carrying capacity)이란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1970년에 자극되었던 논의에 덧붙여 논의가 확산되는데, 1987년 발간된 소위 Brundtland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1992년 Rio 지구환경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 세계 발전목표와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Brundtland의 정의는 기존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존과의 조화’라는 접근보다는 좀더 구체성을 띤 정책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elman(1996: 11)은 이 개념에 내포된 이념은 다음과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futurity)’인데, 이는 한 세대는 최소한 자신들이 물려받은 만큼의 환경조건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대내 형평성(intra-generation equity)’ 또는 사회정의 원리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그 안에 인간의 욕구 원리를 포함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셋째, ‘경계를 넘어서는 책임(trans-frontier responsibility)’으로서, 이는 한 지방, 지역 또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다른 곳의 환경조건을 희생하면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념에 대해 양중희(1995: 77-78)는 세계 빈곤층들의 본질적 욕구에 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욕구의 개념과 기술과 사회조직이 현재의 욕구 및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부과하는 한계의 개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정전(1995: 14-20)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으며, 한 국가 안에서의 계층 형평성과 국가 간의 형평성을 포괄하는 형평성, 즉 윤리성이 강한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Estes(1993: 5)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과정과 목적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고, 그 개념의 의미를 ①지구 위에서의 인류와 삶의 단위, ②폭력의 최소화, ③환경의 질 유지, ④최소의 세계 복지 기준에 대한 만족, ⑤인간 존엄성의 우선성, ⑥다양성과 다

원성 유지, ⑦보편적 참여의 일곱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논의에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의 발전 단계에서 1970년대까지는 자연체계에 가해지는 손실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 좀더 관심을 두고 있고,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 지역의 책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Estes의 분석에서 함의되고, Bartelmus(1994: 64)가 지적하였듯이, 경제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도 우리 인간의 복지에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것, 예컨대 자유·평등·정의·사회안정·건강·교육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성 외에도 비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내포된 가치 개념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각각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어원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은 de Vries(1989: 17)가 지적하고 있듯이, 바람직한 상태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참는 것을 의미한다. 형용사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 능동적 의미를 갖는다면, ‘지속 가능하게 하는(to sustain)’ 동사는 수동적 의미를 가진다. 형용사로 사용될 때의 ‘지속 가능한’은 증진될 수 있는 것 또는 방어될 수 있는 행동이나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능동태에서 ‘지속 가능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처방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또는 능동적 및 긍정적 또는 수동적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이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규제적 성장 정의(Constrained Growth Definition)와 자원 유지 정의(The Resource Maintenance Definition)가 대표적이다. 환경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만, 성장의 추구를 지속 가능한 개발로 보는 규제적 성장정의(Batie, 1989: 1084)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좀더 생태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추구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여전히 일차적인 목적이 된다. 즉, 이 관점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대대앙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재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은 계속적인 성장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적 성장에 대한 비판에 근거를 두어, 계속적인 성장보다는 기존의 그리고 미래의 자원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원유지 정의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을 시키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과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노력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Batie, 1989: 1085), 자연자원의 보호를 명백한 목적으로 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요구하는 변화 가운데 주요한 것은 자연자원의 내재적 가치와 모든 삶의 유형에 대한 판단, 소망보다는 실제적 욕구에 대한 만족, 반 소비주의와 개인적 부의 최소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순하고 적절한 기술의 사용 등이며(Naess, 1995), 성장은 생태체계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양적 확장으로 정의되며, 개발은 환경의 역동적 균형에서 물리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제체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Daly and Cobb, 1989: 71).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양종회(1995: 79)는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을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혹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면에 지속적인 성장이나 성공적인 발전을 강조하게 되면, 환경문제는 단지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로 축소되기도 한다고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태를 고려하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 성장은 현재의 환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가 생태체계가 지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많은 사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Korten(1992: 161)의 지적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Lele(1991: 609)의 지적은 사실상 자원유지 관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적 성장 접근과 자원유지 접근은 자원과 그 활용의 차원에 대한 강조의 차이일 뿐 실제로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두 입장을 지지하는 대부분은 세대간 형평성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다(Bridger and Luloff, 1998). 더욱이 규제적 성장 접근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선진국이 자연자원과 소비재의 소비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의존뿐만 아니라 하고 생태적 상호의존을 인식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라는 것이다(Castle, 1993: 281). 환언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점은 자연환경이 인류의 개발활동을 수용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바로 이러한 환경의 수용능력이 생산과 경제성장의 제한점이라는 공통분모에서 그 논의의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차이는 이러한 논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에 제시되어 있는, 현 세대의 욕구와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극단의 관점에서는 두 입장에서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두 관점의 공통적인 주제를 구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2.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개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는 대체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다. Maser

(1997: 8)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는 주민과 환경과의 관계의 질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지역사회는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주민들간, 주민과 환경의 관계의 질과 우선성에 초점을 둔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개발이란 높은 수준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식 수준과 모든 세대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변혁을 의미하고, 지역사회개발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란 여러 조건들을 세대간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적으로 개인적 의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Maser, 1997: xv).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개념을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정의하는 관점도 있다. Milbrath(1989: 156)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구의 한계수용능력을 초과함으로써 결과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달성해야 할 사회조직의 형태로서, 그 사회가 뿌리를 두고 있는 생태계 내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기능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Geis와 Kutzmak(1995: 3)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공 보건을 증진시키는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활동 목표 체계이자 모델이며, 그 목표를 가시화 시키는 철학적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러한 몇 가지 정의들은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또는 수단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지역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이 순환되는 공간 및 행정체계, 장소 및 주민을 의미하는 물리적 측면과 공동의 책임, 직업, 문화 또는 흥미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사회적 측면이 있다(Selman, 1996: 2-3). 그런데, 지역사회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지역사회의 수직적 연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따른 자본이동과 지역에 대한 집합적 감정과 개인적 애착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경계설정이나 지속 가능성의 실천에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더 이상 자체적인 실체이거나 경계를 가진 실체는 아니지만, 그것이 지역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Wilkinson, 1991: 22), 지역사회가 자의적이든 인위적이든 반드시 행정적 경계와 일치될 필요는 없으며(Bridger and Luloff, 1998), 또한 지역사회 경계의 탐색이 귀납적 과업이므로 주민들간의 행동과 연계에 대한 영토 범위를 추적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지만, 분석은 자치도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Wilkinson(1991: 24)의 주장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시사한다. 즉, 지역사회를 정태적인 개념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이러한 접근이 직접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이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유용한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조직의 지역적 유형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설계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Bridger and Luloff, 1998).

한편,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목표 또는 수단과 관련하여 Fischer(2000: 7)는 ①연맹 형성, ②다학문적 계획, ③3E(환경, 경제, 사회적 형평성)의 통합, ④사회적 형평성의 개선, ⑤마케팅, ⑥동반자 관계와 시민 하부구조, ⑦자원이용전략, ⑧가치 부가적 사업요소와 활동, ⑨지역자치와 계획과 같은 요인들이 지역의 환경, 토지이용,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평가 과정에 통합되어야 지역사회를 지

초기 관심사는 서구에서 비롯된 후기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데 주어졌지만, 1970년대에는 사회변화 추세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노력과 정책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구성요인으로 범주화시키려는 일반적 모델의 추구가 주된 관심영역이었다. 이후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QOL)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서는 그 동안의 지표개발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환경조건 또는 물리적 속성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에 대해 개인의 평가, 감정적 상태 등을 반영하는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라는 Bauer(1966: 1)의 고전적인 사회지표 정의는 사실상 학자와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변화의 분석과 측정을 위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와 정책에 관련된 유용성의 측면인데, 개발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개발의 의의는 개발된 지표의 활용성과 관련할 때 보다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용기(1972: 29)는 사회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중요한 사회문제를 정책 결정자에게 확인시키고, 사회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책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개발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Miles(1985: 75)는 사회지표의 용도를 ①사회개발의 대상 설정, ②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 ③정책의 비교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결정과정과 ①사회추세의 기술, ②총체적 개발 전략의 수립, ③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촉진, ④정책 결정자에게 계획적 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일반적 용도로서의 유용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개발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지표는 지역사회개발의 정책, 지역사회 상황의 변화, 지역 간 비교

기준으로서의 자료, 개발활동의 평가 측정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사회개발 관련 개념의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지표개발의 주요 이슈

일반적인 사회지표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지표간에는 지표의 내용에서 분명한 한 가지 차이가 제기된다. 대체로 사회지표가 사회전체의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의 지표는 지역사회개발 제 영역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성이라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개발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적인 단일 지표의 개발보다는 지역적 변이를 반영하는 미시적 차원의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지표개발 사례는 이에 대해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데, 자원이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최소화)에서부터 주민의 권력화(empowerment: 의사결정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문제와 그 실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량화가 가능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13개 영역 113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지방 정부가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Cartwright(2000)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지표개발을 완료한 41개, 진행중인 72 및 아직 시작하지 않은 25개 등 총 140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제 21」의 수립 정도를 확인하고, 어떠한 지표 영역을 선택적으로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지방정부의 46%는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영국 중앙 및 지방정부(UK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의 정의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이 정의가 다

른 정의에 비해 지역적 차원의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며, 가장 잘 알려진 Brundtland의 정의는 지방정부의 32%가 수용하고 있다. 두 가지 정의가 내려진 시기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순수한 환경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지표개발의 틀에 대해서는 「환경·사회·경제」라는 세 개의 영역이 관리가 가능하고 대중들에 대한 설득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81%), 「한계수용력과 삶의 질」이라는 두 개 영역이나, 「환경과 자원의 관리와 보호 및 국제적인 행동 등」을 포함하는 다섯 개 영역에 대해서는 모두 13%만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환경·사회·경제」라는 세 개 영역과 관련된 총 108개 지표 중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은 18개 지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Cartwright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지역사회마다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곧 지역적 변이를 반영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지표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슈는 다양한 범주에서 분류될 수 있는 세부 지표의 개발과 활용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Hart Environmental Data (1998)는 「경제·사회·환경」의 세 개 영역을 핵심적인 범주로 구분하고, 정부, 교육, 공공 안전, 건강, 여가, 주택공급, 자원 이용, 삶의 질, 교통과 인구 등 총 13개 범주 90개 항목, 449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 지표가 다양한 규모와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개발될 수 있는 지표인지 여부와 함께, 만일 지역사회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경우 선별된 지표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환언하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지표는 지표와 관련된 원 자

료를 개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사회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하의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이 강조되거나 사업별 지표를 개발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지표 개발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 지표는 각 범주간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사회 개발의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것은 모든 것에 우월하다는 극단의 입장이 나타나 관련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된 자원의 범위 속에서 활동하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Hart Environmental Data에는 지역사회 현상이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감정 또는 주관적 인식은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삶의 질 개념도 그 의미가 다양하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중들의 관심 영역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삶의 질」 개념을 포함시키고, 순수한 환경적인 것에서 지속 가능 지표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영국의 사례에 기초한 Cartwright(2000: 4)의 지적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지표의 개발이 지역사회 주민의 행복이나 만족을 측정하는 주관적 변인을 의미있게 선정하고, 측정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표는 적어도 어떤 무엇이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데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지표가 나타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며(주학중, 1981: 33), 사회변동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효율적인 지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①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 ②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③지역사회 구성원에게서 발전되고 받아들여 질 것, ④경제, 사

회와 환경을 고루 고려할 것, ⑤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것, ⑥다른 지역사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 ⑦정확한 자료에 근거할 것, ⑧시의 적절한 자료에 근거할 것 등을 제시한 Hart Environmental Data의 권고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표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규모와 지역사회 개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이해시키고 지각시킬 수 있는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사회개발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주민이 정부와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정밀하고 의미있는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실천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2. 의제 21(Agenda 21)

지속 가능한 개발의 다양한 영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의제 21」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Rio 선언의 실천계획인 「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존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전문과 4부 39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제 21」은 그 범위(사회경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 집단의 역할 강화, 이행수단), 내용(빈곤퇴치, 인간정주개발, 보건, 농업 및 농촌 개발 등)과 대상(여성, 아동과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농민) 그리고 방법(재정, 기술이전과 능력배양, 교육·홍보·훈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국내 및 국제협력 등)이 사실상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함의하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의제 21」 계획의 수립은 각 장별로 그 목표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 지표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한편, 의제 21의 37장에서는 국가별로 의제 21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국가와 국가 내 지방자치단체는 비록 국제협약과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이 권고에 따라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의제 21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1996년 11월 현재 64개국 1,812개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덴마크(147개), 핀란드(88개), 네덜란드(143개), 노르웨이(415개), 스웨덴(307개), 영국(285개) 등 유럽지역의 국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7개와 19개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후진국인 인도(20개)나 중국(14개)보다도 훨씬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ICLEI, 1997; 윤의영, 1999: 463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현재 서울, 순천, 부산, 충남, 대구, 경북 등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고, 60여 개 자치단체가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의영(1999:465)은 추진목표와 시행지표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각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행동지침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구환경과 특정 도시환경과의 체계적 연계의 미흡, 미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내용위주, 국가의제 21과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 즉 지역사회 의 형태, 모습 및 활용은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지역사회의 욕구와 우선순위를 대변하는 지역사회 형태는 지속사회를 미래에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지역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영향을 준다. 이런 면에서 「지방의제 21」 수립의 과정과 실천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 21」 계획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 행동강령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즉 행동지침과 실천의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의제21」은 상징적, 선언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3. 영역별 과제

지역사회 개발은 개발의 내용과 범위, 접근 방법에 있어 종합적이고, 다 학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일된 관점이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연결될 때 지역사회 개발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인이나 목표와 접근기법 등 영역별 과제에 대해서는 시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Gamble과 Weil(1997)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개발 패러다임과 사회운동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정의와 의미를 형성하는 주요 탐구 영역으로 ①환경운동, ②여성운동, ③인구 과잉에 대한 관심, ④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 ⑤사회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Holster(1998)은 농촌지역의 부정적 경향을 되돌리고, 좀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위한 통합적 구성요인으로 ①지방정부 공무원, ②시민 참여, ③협동, ④사고의 전환, ⑤대중 인식, ⑥종합 장기계획 등 여섯 가지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Selman(1996: 49)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 지역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주설계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흐름(flow), 공간(area) 및 참여자(participants)의 세 가지 기본요소와 관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정주 흐름을 물의 분배, 교통순환, 쓰레기 재활용 및 건축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간은 생태적 전략이 이루어지는 계획의 규모로서,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목표집단 공간을 참여자로 간주하면서,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목표 집단의 흥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및 세대간 형평성에 민감한 전략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위한 기법은 특정 조건간의 합리적, 경영 관리적 교환에 의해서만 아니라 이러한 교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문화와 인식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1996: 57), 주민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시민의식과 권력화(empowerment)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시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변화와 그 중요성은 인간의 개발과 인간을 위한 개발이라는 UN의 지역사회개발 목적(1971: 10-1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구성요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접근 방법

Selman(1996: 57-69)은 사회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미래에 대한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을 환경에 관한 명백한 정보의 제공과 정책을 유도하는 기초로 사용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법과 토론과 결정에 주민들의 관여를 촉진시키는 과정 지원 기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의사결정 지원기법을 ①환경보고서의 진술, ②환경 수행에 대한 내부 감사, ③지속가능성에 대한 양적 지표의 개발, ④환경평가의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 논의의 차원을

지속 가능성의 개념과 연결하였기 때문에 주로 환경자료의 추세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과 정지원 기법으로서는 ①주민 참여와 토론 유도 방법, ②환경 행동을 위한 네트워크 및 동반자, ③관계의 창출, ④초점 집단, ⑤대중 등록과 다 른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자유와 촉진, ⑥의견 집약, 갈등해소, 비전제공 및 미래 탐색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그는 환경 관리에서 지속적인 개념의 하나로 한계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특정한 활동 또는 사용수준을 지속시키거나 주 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의 능력으로 해 석하면서, 그 능력을 과학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정의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개발 정책 결 정자는 예방적 접근을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지역 사회의 시민성과 강하게 관계되어 있다(Moore, 1994; Selman, 1996: 145 재인용). Selman은 지역행동의 핵심적 요소는 개별 시민이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시민성을 논의한다.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은 자유로움을 소비하는 것 이상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전적으로 수 동적인 시민성의 유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 민은 특정한 도덕적 의무와 복종을 가지고 있 으며, 지역사회에 능동적 관여를 하고, 어느 정 도는 집합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한 시민 복종을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그는 이러한 시민 성이 변화되는 모습을 시대적 발달에 따라 시 민적 시민의식, 정치적 시민의식, 사회적 시민 의식, 환경적 시민의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면 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환경윤리, 책임 감, 지구촌 의식,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시민 의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권력화(Empowerment)와 시민참여

Selman(1996: 148)은 시민에 대한 권력이전은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상품 과 서비스를 시장, 선택, 가치에 기초해 선호도 를 표현하는 소비자로서 시민을 보는 것이다. 녹색소비주의(green consumerism)가 기초하는 방식 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로서 의 시민의 권력은 강력하며, 많은 상품과 서 비스에 환경 책임감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광범 위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나, 녹색소비주의 그 자체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환경 시민의식의 이론에 병합되어 야만 한다. 두 번째 조건의 시민은 풀뿌리 실천 주의와 관계되어 있으며, 인지된 불공정(injustice)에 대해 급진적인 직접적인 행동을 수행한 다. 이 개념은 순종을 지지하거나 법을 지키기 보다는 시민불복종과 항의가 준비되어 있고, 궁 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홀륭한 시민'으로 본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은 광범위한 대중 의 지원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지방정 부와 상호작용을 하고, 계획토론에 관여되어야 한다.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시민 항의와 법 의 준수, 대중의식(public-spirited) 활동,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된 권력모델을 가진 정상적 인 지방행정 과정간의 균형을 취해야 할 것이 다

라. 협동과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란 지역사회의 환경, 경제, 주 민들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 사 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으로서(Holsler, 1998: 301), 총체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환경적 의미 를 강조하는 의사 결정에 초점을 둔다. 그는 협 동에는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배우도 록 가르치거나 도움을 주는 것과 비 대치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을 모으는 방법을 촉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 대치적 모임을 촉진하고, 참여를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주민들의 협동을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마. 대중 인식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어떤 유형의 계획에서도 핵심적이다. 이는 투입과 토론을 고취하고,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줄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토론, 주민클럽에 대한 연설, 알려지지 않은 집단의 탐색을 촉진하여 주민들을 문제해결에 관여시켜야 한다.

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실천

모든 지역사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기능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다른 곳에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이는 실천가들의 구체적인 책임이 지역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가들은 공공 패널토의, 여행, 영상 자료, 지역사회 워크숍, 또는 이러한 방법의 조합과 다른 아이디어를 통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선택된 교육접근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육은 또한 실천가들의 촉진역할의 한 부분이다. 지역사회 능력형성은 현재와 미래의 지역사회 욕구를 균형화하려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시민참여와 협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중요하다. 지역사회개발 실천가들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일 수 있도록 또는 익숙하지 않은 집단을 중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민들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실천하지는 못한다. 각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자체의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Holsler, 1998: 303).

이런 점 외에도 지역사회 개발의 내용이나 대상별로도 많은 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 과제의 핵심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천지식을 만들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환언하면, 좀더 종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패러

다임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안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과제이다 (Gamble and Weil, 1997: 219). 지역사회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범세계적인 사회적 그리고 생태적 관계에서 새로운 활동지침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발전, 성장, 기술, 자연에 대한 사회적 관계, 세대와 성을 망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지역의 자원과 주제, 전 세계적 자원과 주제, 경제와 사회, 사회와 자연세계간의 필요한 연결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개발 활동이 평등, 환경적으로 건전한 결과와 인간성장을 위한 개선된 기회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V. 결 론

이 연구는 최근의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학문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의미와 탐구영역을 시론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이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개발의 개념과 과정 및 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지구의 생존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도덕적 기반을 가진 방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개발 실천가들에게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그 목적을 위해 활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이자,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참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지역사회 개발과정의 참여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활동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영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상태로 서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영역 확장을 위한 이 연구에서는 개발 활동을 비교하고,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지역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 지역사회개발 활동의 계획 체제인 「의제 21」,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영역을 논의하였다. 지표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역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발되고 활용 가능한 지표의 개발 및 선정,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과 가중치의 부여를, 「의제 21」에서는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의 선택적 영역에 대한 개입전략과 방법, 지역사회 주민의 의식 제고, 지역사회 장의 형성과 사회적 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이 주된 과제로 제시되었다.

V. 참고 문헌

1. 김용기, 1972, "주민행복의 이념 및 그 측정에 관한 연구," 영남대 논문집, 사회과학편, 6.
2. 박호균·정지웅, 2000, "농촌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선린촌(1967-1999)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연구, 25(1): 227-242.
3. 양중희,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과 발전," 이정전(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4. 윤의영, 1999, "환경위기와 지속가능한 개발," 협성대학교 협성논총, 제11집.
5. 이정전 편, 1995,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6. 주학중, 1981, "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여름호.
7. 최재용, 2000, "Quality of Life Indices for th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8. Bartelmus, P., 1994, Environment, Growth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9. Bauer, A. R., 1966,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in Raymond A. Bauer(ed.), social Indicators, MIT Press.
10. Barie, S. S., 1989,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to the Profess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1. Bridger, C. J., 1995,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Unpublished Manuscript, The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Rural Developmen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2. Bridger, C. J., & A. E. Luloff., 1998,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http://www.cas.nercrd.psu.edu/community/legacy/bridger_community.html.
13. Brundtland, G. H., 1989, Sustainable development: an Overview, Development, 2(3).
14. Cartwright, E. L., 2000, Selecting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Does consensus exist in their choice and purpose?, Planning Practice & Research, 15(1/2).
15. Castle, N. E., 1993, A pluralistic, programatic and evolutionary approach to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estry Ecology and Management, (56).
16. Daly, E. H., & J. B. Cobb, Jr., 1993, For the Common Good, Beacon Press.
17. Dunlap, E. R., & William R. Catton, Jr., 1979, "Environmental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5).
18. Estes, R. J., 1993,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oxis, Social Development Issues, 15(3).
19. Fischer, E. E., 2000, Building livable communities for the 21st century, Public Roads, 63(6).

20. Gamble, N. D., & Marie O. Weil., 1997,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hallenge for Community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Development Journal: An International Forum, 32(3).
 21. Geis, Don., & T. Kutzmak., 1995, Developing sustainable communities, Public Management, 77(8).
 22. Guy, M. S., & David L. Rogers., 1999, Community surveys: Measuring Citizens' Attitudes Toward Sustainability, Journal of Extension, 39(3).
 23. Hart Environmental Data, 1998, Sustainable Community Indicator: Tainers' workshop.
 24. Hosler, R. W., 1998, Building liveable communities,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29(2).
 25. ICLEI, 1997, Tools for a Sustainable Community, <http://www.iclei.org/la21/onestop.htm>.
 26. ICLEI, 1997, Local Agenda 21 Survey, <http://www.iclei.org/la32/la21rep.htm>.
 27. Korten, C. D.,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Policy Journal, 9(1).
 28. Lele, Sharachandra., 1991, Sustainable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19(6).
 29. Maser, C., 1997,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Principles and Concepts, St. Lucie Press
 30. Milbrath, W. L., 1989,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Learning Our Way Out, Albany, N.Y.: Suny Press.
 31. Miles, I., 1985, Social Indicators for Human Development, Frances Pinter.
 32. Naess, A., 1995, "Deep Ecology and Lifestyle," in George Sessions(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Shambhala.
 33. Redclift, M., & Colin. Sage, 1994,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Agenda for the Southern Hemisphere.
 34. Scott, Joanne, 1995, Development Dilemma in the European Community, Open University Press.
 35. Selman, Paul, 1996, Local Sustainability: Managing and Planning Ecologically Sound Places, St. Martin's Press.
 36. Singletary, Loretta, 1995,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The quality of life in Pennsylvania, <http://pubs.cas.psu.edu/freepubs/pdfs/ua292.pdf>.
 37. Singletary, Loretta, & Timothy Kelsey, 1996,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Non-farm attitudes towards farming, <http://pubs.cas.psu.edu/freepubs/pdfs/ua307.pdf>.
 38. United Nations, 1971, Popular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Emerging Trends in Community Development.
 39. Vries, H. J. M. de., 1989, Sustainable Development, Netherland: Groningen.
 40. Wilkinson, P. K., 1991, The Community in rural america, Greenwood Press.
- (2002년 10월 9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